

## II. 産業 診斷

### 1. 主要 産業 懸案

#### (1) 外國 建設業體의 國內 進出

- (건설업체 경영난 심화) IMF 사태 이후 재무 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으며, 대형 건설업체로 부도가 확산되고 있음
- (외국 건설업체 진입 확대) 올해부터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업의 M&A가 허용돼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 진입 확대가 예상됨
- (파급 효과 및 대응) 그동안 국내 대형업체들이 누리던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국내외 업체간 치열한 경쟁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임. 국내 건설업체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및 분양가 자율화 조치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. 국내 건설업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, 하도급 관리로 나가야 함

수주난, 자금난으로  
인해 건설업체의 연  
쇄 부도 확산, 대형  
건설업체 부도 확대

- (건설업체 경영난 심화) IMF 사태 이후 재무 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으며, 대형 건설업체로 부도가 확산되고 있음
  - 올해 국내 건설업체는 극심한 수주난과 금융 시장 경색에 의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
  - 97년 부도 건설업체 수는 1,072 개사(11월말 기준)로 96년의 783 개사에 비해 37%나 증가했음
  - 특히 금융 시장의 경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재무 구조가 취약한 업체의 부도가 빈발하고, 하도급 거래 특성상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
  - 건설업체의 부채 비율도 476.3%로 제조업의 317.1%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
  - IMF 사태 이전까지는 대형업체보다 중소기업체의 부도 발생률이 높았으나, 현재는 부도 여파가 대형 건설업체로 확산되고 있음
  
- (외국 건설업체 진입 확대) 올해부터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업의 M&A가 허용돼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 진입 확대가 예상됨
  - 97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진입한 외국 건설업체

국내 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로 외국 건설업체들의 M&A를 통한 국내 시장 진입 용이, M&A를 통해 하청 관계나 영업망 인수

- 는 110여 개사에 이르고 있음
- 지사 4개사, 합작 및 단독 투자의 경우가 20개, 나머지는 지점과 연락 사무소 형태로 진출했음
  - 개방 전에 50여개 사에 이르던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 진출이 시장 개방후 배로 증가했음
  - 작년에 공공 건설 시장 개방에 이어 올해부터는 주택 공급 및 임대업의 외국업체 참여가 허용되어 건설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었음
  - 또 올해부터 정부가 외국인 M&A를 사실상 허용함에 따라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
  - 최근 국내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, 흑자 도산은 외국 건설업체들에게는 국내 진출의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임
  - 외국 업체의 국내 진입 방법은 컨소시엄에 의해 진입하는 방법과 M&A에 의한 인수 합병 방식이 있는데 외국 기업들은 적은 자본으로 진출이 가능한 M&A를 택할 가능성이 높음
  - 특히, 대형 건설업체중 이미 부도난 업체들도 많고 부실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업체들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임
  - 이 경우에는 외국업체들은 기존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에 구축해 놓은 하청 관계나 영업망 등을 인수해 국내에 쉽게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
  - 기존에 진출한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플랜트 등 기술 집약 분야에 주로 진출하였으나, 향후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인수를 통해서 국내 건설 전 부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
- (파급 효과 및 대응) 국내 건설업의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선별적 금융 지원 및 분양가 자율화 조치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. 또한 건설업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와 하도급 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함
- 외국업체들의 국내 대형업체 M&A가 실현되면 그등

국내외 대형업체간  
치열한 경쟁, 분양가  
자율화, 선별 금융  
지원 필요, 업계는  
적극적인 전략적 제  
휴 필요

안 국내 대형업체들이 누리던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 
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임

- 그동안 불황 지속과 자금난으로 중소 건설업체들  
보다는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수주가 몰리는 경기  
양극화 현상이 있었으나, 이제는 외국업체의 진  
입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의 메리트는 많이 상실  
할 것으로 보임
- 수주난과 자금난,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 진입으로  
인한 국내 건설 산업 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 
는 분양가 자율화 조기 도입과 우량 건설업체에  
선별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해야함
-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은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 방  
식에서 벗어나 구조 조정 및 보다 적극적인 전략  
적 제휴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
  - 예를 들면 시공의 경우에는 특화된 외국의 시공  
전문회사를 하도급자로 유치하고, 국내 기업의  
경쟁력이 떨어지는 CM 부문이나 설계 부문은  
외국 전문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필요가  
있음
  - 또는 외국 건설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 
선진국 시장에 역으로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생  
각해 볼 수 있음
  - 이외에도 하도급업체를 소수 정예화하고 이들에  
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
(김선덕)